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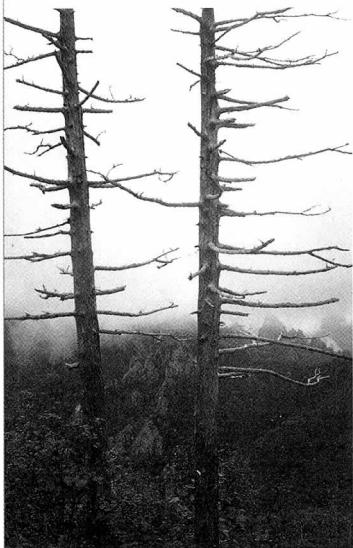
흥미로운 나무 이야기

시원한 나무 그들이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뜨거운 열기의 방패막이 되어 주는 나무는 그 종류가 다양한 만큼 이름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나무에 신성한 기운이 있다하여 당산나무처럼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거나 신이 나뭇가지를 타고 내려온다하여 신목을 숭배하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마을에 우환이 겹치거나 풍년을 기원할 때면 당산나무 아래 제단을 만들어 굿을 했으며 나무 주변에 새끼줄을 둘러 오색의 천을 매달아 신성한 장소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처럼 신성시되어 온 나무들이 있는가 하면 재미있는 이름이나 사연에 얽힌 나무들도 있다. 봄이 되면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생강나무는, 새로 난 잎이나 가지를 문지를 때마다 생강 냄새가난다 하여 생강나무라 불리게 되었다. 실제로 예전에 생강 구하기가 어려웠던 곳에서는 그 잎을 생강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호랑가시나무는 잎에 호랑이도 무서워할 만큼 뾰족한 가시를 지니고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밖에도 줄기를 잘라 향으로 썼던 향나



무, 꽃이 피면 달콤한 향기와 액이 나오기 때문에 벌과 나비는 물론 파리까지 다 모여든다는 돈나무 등이 있다. 이 돈나무는 처음에 제주도에서 '똥낭(똥나무)' 이라고 불렀는데, 이 나무를 가져 간 일본 사람들이 발음이 어려워 돈나무라고 불렀다. 그러자 부끄럽게도 우리 나라 사람들도 따라서 돈나무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다양한 나무들 가운데 우리 나라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이다. 키는 물론 나이도 가장 많은 이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30호로 지정받아 보호되고 있는데 높이가 62미터, 둘레가 14미터에 이르고 가지의 길이가 남북으로 30미터나 될 만큼 큰 나무이다. 반면 한라산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돌매화나무는 평균 키가 1센티미터 정도밖에 안되고 가장 크게 자라도 10센티미터로 가장 작은 나무이다.

또 우리 나라의 나무들 가운데에는 마치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물려받듯이 주인으로부터 땅을 상속받은 나무가 있다. 예전에 있는 소나무 '석송령'은 주인이 죽으면서 땅을 상속해 준 덕분에 매년 장학 사업을 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낸다. 그리고 안동 용계리에는 댐속에 수몰될 뻔한 나무 한 그루를 살리기 위해 12억이라는 막대한 경비를 들이기도 했다. 그밖에 음나무는 가지 때문에, 복사꽃은 그 열매인 야생복숭아의 신맛이 겹나서 귀신이 가까이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나무들에는 예로부터 전해 오는 재미있는 이름과 전설이 많아 신비롭고 흥미롭다. ●



돌매화나무

돌매화나무는 한라산 표고 1800m 지역 바위에만 자생하는 희귀목으로 절쪽꽃이 질 때쯤 피는 하얀 돌매화꽃은 참으로 아름답다고 한다.



한여름 밤의 불청객

푹 푹 찌는 더위 때문에 잠 못 이루는 한여름, 간신히 잠들었는데 창문 틈으로 몰래 침투한 모기 한 마리의 ‘웁’ 소리에 온 가족이 자다 말고 모기잡이에 나선다. 이 모기 소리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알을 낳기 위해 사람의 피가 필요한 모기의 입장에서는 조용히 적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날개를 움직이는 그 순간 두 날개의 마찰로 인해서 소리가 나는 것이다. 모기는 흡혈 비행을 위해 1초 동안 3백 번 이상이나 날개를 떨어야 한다.

세계에 2,000종이 넘게 살고 있는 모기는 너염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사상충 같은 질병을 퍼뜨린다. 보통 우리가 보는 집 모기는 고인 물이나 하수도, 구정물에 서식하는데, 한번에 300~400개씩 알을 낳는다. 그 알이 애벌레인 장구벌레를 거쳐 2주일 만에 모기가 되는 것이다. 바퀴벌레와 쌍벽을 이루는 뛰어난 번식력을 지닌 요즘 모기는 모기약에 대한 저항력이 20년 전보다 열두배나 강해져 웬만한 모기약으로는 오히려 사람에게 이로운 곤충만 죽이고 인체에도 해로울 뿐이다.

모기에게 피 한 방울이라도 더 빼앗기지 않으려는 인간의 애처로운 노력은 방법도 다양하고 역사도 깊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1200년부터 모기를 쫓기위한 특정 풀을 말려 태웠으며, 늪지대의 사람들은 모기가 토끼 몸을 좋아하는 것을 이용해 토끼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잤다. 또한 우리가 즐겨 입는 청바지는 아

메리카 원산의 모기 쫓는 풀에서 추출한 쪽빛 물감으로 옷을 염색하여, 야외에서 일할 때 모기가 달려들지 못하게 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모기는 어떻게 사람들의 보드라운 살을 알고 침투하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의 체취 때문이다. 모기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젖산 등의 냄새를 좋아한다. 같은 방

에서 잠을 자도 땀이 많은 사람들이 모기에 더 잘 물리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술 마신 후 혹은 운동 후에 씻지 않고 그대로 자는 것은 모기에게 헌혈을 하는 지름길이다. 또 향이 있는 비누나 샴푸의 사용을 삼가고, 짙은 색 옷보다 옅은 색 옷을 입는 것도 모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요즘은 뿌리는 모기약과 모기향 및 전자모기향 등을 많이 이용하는데 반드시 통풍을 시키고 사용해야 한다.

시골에서는 저녁이면 마당 한가운데 마른 풀을 모아 모깃불을 피워 놓곤 한다. 사방에 연기가 퍼져 있어 배고픈 모기들이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종잡을 수가 없게 하는 것이다.

더운 여름밤, 유난히 옛사람들의 여유로움과 지혜가 그리워진다. ● 〈좋은생각 7월호〉